

존비어체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봉영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말이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① 왜 말을 문제 삼는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 고도의 문화를 일구어온 것은 오로지 말을 지니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인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는 까닭에 일찍부터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을 '하느님의 드러남', '존재의 집', '문화의 그릇' 등으로 일컬어 왔다.

지구상에는 민족이나 문화집단에 따라 매우 많은 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말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의 성격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어가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상대의 지위에 따라 말투의 격을 달리하는 존비어체계이다.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는 존비어체계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한국인과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존비어체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비어체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그러하였고,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입을 닫아버렸다.

② 존비어체계와 수직적 서열의 조장

한국어의 존비어체계는 사람들이 모든 사물을 수직적 서열 관계로 바라보고 처리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수평적 대등 관계를 극도로 축소해 버린다. 따라서 존비어체계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한국인은 모든 사물을 수직적 서열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

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완고한 형식적 권위주의는 이러한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어의 존비어체계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언어에 의한 형식적 권위를 강력히 부여함으로써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권력의 차이를 더욱 벌려놓는다. 결국 존비어체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쉽게 압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구실을 한다. 이 때문에 존비어체계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명령과 복종에 따른 수직적 소통을 주로 하는 신분사회와 매우 잘 어울린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상전과 노비는 존비어를 사용함으로써 상전은 더욱 상전다워질 수 있었고, 노비는 더욱 노비다워질 수 있었다. 즉, 상전이 말을 하면 '나리께서 말씀하시교', 노비가 말을 하면 '천한 것이 말을 아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령과 복종에 따른 수직적 소통으로 신분적 주종 관계를 한층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존비어체계가 신분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19세기말에 신분제도를 철폐한 이후에 잘 드러났다. 조선왕조의 당국자들은 국가적 위기를 당하자,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철폐했지만, 기존의 신분관계는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왜냐하면 양반과 상민, 상전과 노비가 기존의 말투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상하존비가 엄격한 말투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심지어 1960년대 초까지 상전과 노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민이나 노비 가운데 진정으로 신분 해방을 원하는 이들은 일찍부터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민주적 인간관계가 확대되면서 노비의 후예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

3 준비어체계와 수평적 소통의 어려움

한국어의 준비어체계는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와는 어울리기 어렵다. 민주사회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평적 소통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는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자발적 합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준비어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서열 속에 들어가서, 수직적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은 박 과장에게 “나는 과장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말하고, 박 과장은 김 사장에게 “저는 사장의 말씀이 옳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런 대화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장은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과장에게 “왜 그리 말이 많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잔소리 집어 쳐”라고 불호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사장의 신임을 많이 받는 과장이라도, 사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오늘날 한국인은 민주적 인간관계를 지향하면서 토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까닭에 자유스런 토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한국인은 토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이 많다. 일례로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과 더불어 토론수업을 시도해보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실패를 거듭하면서 답답함과 절망감으로 주저앉고 만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열리지만 토론에 성공하는 예는 거의 없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신진 학자가 토론다운 토론을 해보겠다고 불쑥 나섰다, 선배나 원로 학자들로부터 철부지나 아송이로 몰려 봉변을 당하고 물러나는 예를 자주 본다. 한국인은 완고한 형식적 권위주의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늙은이와 젊은이가 어울려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국인은 토론이 불가능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한국인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아울러 그것을 담아내는 말의 형식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나가면 자연히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면서 표정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손짓도 거의 하지 않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발표와 토론을 시켜도 바보처럼 말을 못하고 찢찢매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생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이런 일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하다.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은 모기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몇 마디 하다가 그만 두어버리는 일이 예사이다. 이러니 학생들이 스스로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은 극히 보기 어렵다. 이처럼 학생들이 말조차 제대로 못하니, 한국의 연예인들은 학교의 수업장면을 희화시켜 코미디 소재로 삼는 일이 많다. 코미디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 바보가 되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조차 온통 일탈 행동으로 난장을 이룬다. 학교가 이치에 맞는 말과 정상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학교를 소재로 한 황당한 코미디들을 보면서 강한 재미를 느낀다.

한국의 학생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학교가 말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글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공부하는 곳, 즉 서당(書堂), 서재(書齋), 서원(書院) 등을 모두 책을 보관하고 읽는 곳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이러한 책은 모두 외국어인 한문으로 씌어져 있었기에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읽고 쓰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을 “학교에 글 배우러 간다”라고 말해 왔다. 또한 한국인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거의 모두 글로써 시험을 치른다. 학생에게 말은 글을 배우는 수단이고, 글로써 시험을 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과 목 가운데 말로써 하는 강경법(講經法)이 있었지만, 단순히 한문으로 된 경전(經典)을 외우는 시험에 지나지 않았었다. 오늘날 한국인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구술, 면접 등을 시도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말이 경시되기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이 말하는 능력에서 크게 뒤지는 것은 당연하다.

④ 준비어체계를 바라보는 상반된 태도

한국인이 준비어체계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은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수직적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준비어체계를 수직적 질서 수립에 필요한 매우 바람직한 언어체계로 평가하여 순기능을 강조하고, 수평적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수평적 질서 수립에 역행하는 방해물로 여겨서 역기능을 강조한다.

민주사회에서 준비어체계는 수평적 질서 수립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사회체제와 근본적 갈등 관계에 놓인다. 민주사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사람들은 준비어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불평등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준비어체계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수립을 가로막는 일종의 반체제적 억압 장치와 같은 구실을 한다. 단지 수직적 인간관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민주사회에서도 완고한 수직적 질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준비어체계의 문제점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차별과 억압을 도리어 순기능 측면에서 옹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들은 차별과 억압이 경쟁과 성취를 조장하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록 물리적 폭력이 근본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물리적 폭력을 순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옹호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민주적 생활방식이 점점 확산되는 것과 더불어 준비어체계의 기능도 크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대등과 호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상하 관계를 제거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활 속에서 자연히 준비어를 사용하는 정도와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한국인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고관들은 택시를 타면, 기사에게 반말에 가까운 어투로 어디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아무리 나이 많은 고관이라도 택시기사에게 반말로 목적지를 알리는 일은 흔치 않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택시기사에게 반말로 목적지를 알리는 고관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⑤ 준비어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준비어체계를 청산해야 한다. 이미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인은 준비어체계를 사용하는 범위와 정도를 크게 축소시켜 왔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준비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본 방식은 계속 민주적 삶의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며,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변화해 왔다. 만약 한국인이 진정으로 민주적 삶의 방식을 원한다면 수직적 언어체계를 수평적 언어체계로 빠르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준비어체계는 단순히 예절 바르고 공손한 삶을 위해서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 준비어체계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수단일 뿐이다.

만약 준비어체계가 단순히 예절 바르고 공손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들도 당연히 준비어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들 또한 예절 바르고 공손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인이 준비어체계를 수정하거나 청산하는 것은 문화의 바탕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한국인이 민주적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면 다른 도리가 없다. 만약 우리가 대등한 인간관계나 민주적 인간관계를 선호하여 준비어체계를 청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때 우리는 사암(俟庵) 정약용이 신분제도에 대해 가졌던 생각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사암은 《발고정임생원론(跋顧亭林生員論)》에서 지배층이 양반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크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양반이 되도록 하여, 나라 안에서 양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사암은 양반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에 양반이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 방법은 모두가 양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신분제도를 청산한 사회에서 살아가다보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이 양반', '저 양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히 '양반'이나 '상놈'이라는 말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말을 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춤말이 없어지게 되어, 말이 평등해지면서 인간관계가 한층 대등하게 될 것이다. 말이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가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차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차별이 바로 말의 불평등에서 비롯하는 차별임을 명심해야 한다. 🐦